

6,7월 인성 교육 자료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 활용)

6월 13일

“친구들 덕에 난민 인정 받아” 이란출신 중학생 2년만에 웃다.

새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18년 10월 19일 이란 출신 A 군(15)의 난민 지위를 승인했다. 2016년 5월 처음 난민 신청을 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A군은 이날,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준 덕에 가능했으며 한



사람당 3일씩 붙잡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중학교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군의 사연을 올리고,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난민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함께 온몸으로 견뎌내 주었기 때문이다.

이란에서 태어난 A군은 7세였던 2010년 사업을 하던 아버지 B씨(52)를 따라 한국에 왔다. A군이 난민 신청을 낸 것은 2011년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면서 기독교를 믿게 됐기 때문이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이란은 개종자를 반역죄로 처벌하며,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처음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군은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따르는 이란에서 기독교인은 종교 박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승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적극적 포교행위를 하지 않는 한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14세란 나이가 종교적 신념을 갖기 너무 어리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상고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고 기각했다. 결국 A군은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같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선 것은 이때다. 같은 반 친구들은 공정한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올해 7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다. 같은 달 A군이 난민지위 재신청을 하던 날 친구 50여 명이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달 초 친구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번에 난민 심사가 극적으로 수용된 건 친구들이 사회적 관심을 높여준 데다 A군의 종교적 신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권종현 난민과장은 성당 신부님과 교인 등 주변인들을 만나보고 탄원서와 서명 등을 살펴본 결과 A군의 신앙심이 확고해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8년 10월 20일자 기사 중에서 일부

※ 생각해보기

1. 난민이란 무엇일까요?
2. 내 주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